

오타키 호수 원지

오타키 호수 원지는 도요타시 시가지와 마쓰다이라고 사이에 위치한 오타키 계곡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오타키 호수는 오타키 계곡을 흐르는 니오 강을 막아서 만든 인공호입니다. 계곡 입구에서 공원까지는 도보로 약 1시간 걸리지만, 호수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나무들로 뒤덮인 좁은 길이 이어지는 계곡의 서쪽 끝(아래쪽)과는 대조적으로 오타키 호수 주변은 밝고 개방적입니다. 야외 바비큐도 많이 즐기며, 주변 단풍잎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물드는 가을에는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동백, 매화, 벚꽃이 피어납니다.

오타키 호수 다리는 공원으로 이어지는 90m의 붉은색 아치형 다리로, 댐과 그 너머에 있는 강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호수의 북쪽에는 니오 강의 급류와 미야가와 산책로로 통하는 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미야가와 산책로에서는 강의 여울과 우뚝 솟은 바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강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강 놀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